

'24년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경기도 시사점

목차

- I.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현황
-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 III. 정책 제언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복지의 주요이슈는 소득과 돌봄

- ▶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이슈는 소득, 일자리, 돌봄
 - 현실을 고려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과 연금액 인상
 - 노인일자리가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단가는 7% 인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약 6만 명에게 월 평균 서비스 시간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내실화
- ▶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을 이행하며 틈새를 메우는 노인복지정책 실현
 - 2024년 신규사업은 노인돌봄의 AI노인말벗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자격증 관리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을 보완·확대
- ▶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 확대
 -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인으로 예상됨
 - 서비스 종류는 생활돌봄서비스, 동행돌봄서비스, 주거안전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활돌봄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 누구나 돌봄은 일시적·통합적 틈새돌봄이며 전문적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로 의미가 있음

정책제언

- ▶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발맞춘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 필요
- ▶ 신규 돌봄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공무원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과 컨설팅 및 지역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인프라와 욕구조사는 필수적
 - 기존돌봄사업과 신규돌봄사업의 관계성 논의로 우선 지원 순위 논의 및 결정
 -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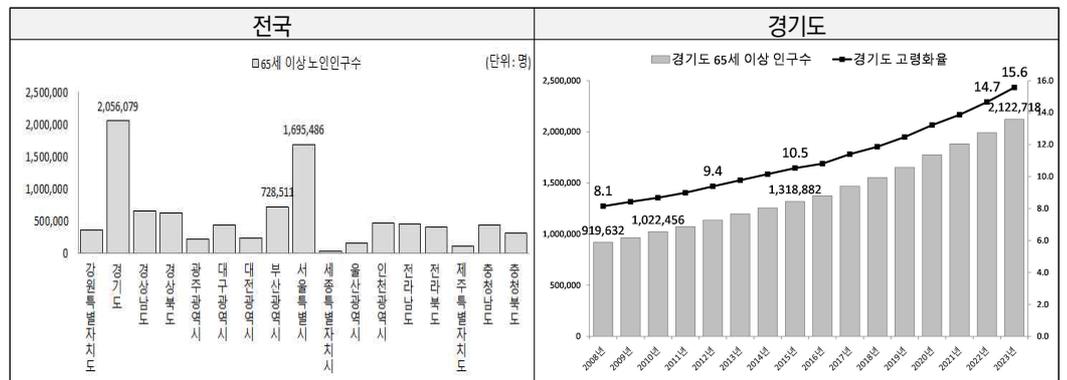
I.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현황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율 상승, 노인부부, 1인가구 증가로 노인 지원 필요 증가

16개 시·도 중 고령화율은 15번째이나 가장 많은 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 ▶ 노인인구 2백만 명인 경기도는 고령화율이 15.3%로 16개 광역시·도 중 15번째이며, 전국 고령화율 18.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¹⁾
 - 사회적 이슈인 고령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정책화된 2008년 이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에 들어오면서 가속화될 전망
 - 2008년 전국 노인인구는 5,069,273명, 고령화율은 10.2%였으며, 2023년 노인인구는 9,730,411명, 고령화율은 19.0%로 증가
 - 2008년 경기도 노인인구는 919,632명, 고령화율은 8.1%였고, 2023년 노인인구는 2,122,718명, 고령화율 15.6%로 증가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노인인구는 고양시가 168,125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의 경우 연천군이 30.2%로 가장 높음²⁾

〈그림 1〉 노인인구와 고령화율 증가 추이(2008년~2023년)



자료 : 통계청(2023.06.),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

자료 : 통계청(2023.12.),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 ▶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2018년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
 - 이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관계가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모두 75세로 진입하는 2038년에는 노인 돌봄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노인가구 유형은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³⁾
 - 노인부부가구와 노인1인가구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돌봄 공백이 우려됨
-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진행, 노인부부가구와 노인1인가구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

1) 통계청(2023.12.),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2024.02.14.추출)
 2) 통계청(2023.13.),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2024.02.14.추출)
 3) 황경란·김수진·최성은(2023).『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I.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현황

보건복지부의
주요 이슈는
소득, 일자리, 돌봄

2024년 보건복지부는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예산으로 10.3% 증액한 25.6조 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요양서비스 확대를 추진

▶ 현실을 고려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과 연금액 인상

- 노인의 평균 소득이 2023년 대비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 상승한 영향으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상향 조정⁴⁾

〈표 1〉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연도별 변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37만 원	148만 원	169만 원	180만 원	202만 원	213만 원
부부가구	219.2만 원	236.8만 원	270.4만 원	288만 원	323.2만 원	340.8만 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24.1.2.(화). 보도자료

- 2024년 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수급⁵⁾

〈표 2〉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3.6%)
부부가구	51만 7,080원	53만 5,680원	1만 8,600원(3.6%)

자료 : 보건복지부 2024.1.2.(화). 보도자료

▶ 노인일자리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 일자리 단가 인상⁶⁾

-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사회서비스형은 6.6만 개,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 증가하여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기대
-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단가는 7% 인상되어,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1.3만 원에서 76.1만 원으로 인상

〈표 3〉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총계	88.3만 개	103만 개	14.7만 개
공익활동형	60.8만 개	65.4만 개	4.6만 개
사회서비스형	8.5만 개	15.1만 개	6.6만 개
민간형	19만 개	22.5만 개	3.5만 개

자료 : 보건복지부 2024.1.2.(화). 보도자료

4) 보건복지부 2024.1.2.(화). 보도자료. 2024년 노인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5) 보건복지부 2024.1.10.(수). 보도자료.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6) 보건복지부 2024.1.18.(목). 보도자료.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I.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현황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노인일자리 단가인상과 노인돌봄 분야의 확대는 긍정적임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약 6만 명에게 월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서비스 시간 확대⁷⁾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이 결정되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⁸⁾
 - 돌봄군은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구분되며, 중점돌봄군은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도가 높은 돌봄군⁹⁾을 의미
-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내실화¹⁰⁾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7월 ~ 2025년 12월까지이며 1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 예산은 2024년 기준 64.8억 원(국비 50%, 지자체 당 5.4억 원씩 12개월)
 -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임시 의료·돌봄 수요군, 병원 퇴원자 등 돌봄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우선관리 대상임
 - 대상자의 명확화, 돌봄과 의료의 연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내실화 노력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는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분의 반영에 그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와 노인돌봄 분야의 확대는 긍정적임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단가는 2017년 22만 원에서 2018년 27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 만의 인상
- ▶ 사회서비스형은 2019년 도입 이후 첫 번째 인상으로 의미가 있음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점군은 일반군과 달리 돌봄필요도가 높은 집단으로 돌봄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
-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과 의료 연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본격 시행
 -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개선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자가 명확해지면서 서비스의 종류와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전망됨

7) 보건복지부 2024.1. 4.(목). 보도자료. 거동불편 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8)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9)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 보건복지부 2023.12.12.(화).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돌봄과 일자리가 2024년 경기도의 주요 이슈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을 이행하며 틈새를 메우는 노인복지정책 실현¹¹⁾

- ▶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비는 6,701,246백만 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부 사업비이며, 경기도 자체사업비는 1,161,622백만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7.3%에 해당
 - 국비 사업비가 82.6%(5,532,667백만 원)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관련 사업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해당
 - 경기도 자체사업비는 17.3%(1,161,622백만 원)로 어르신즐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AI노인말벗서비스 등이 해당

〈표 4〉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비 (A+B)	예산액(A)			시군비(B)	
		소계	국비	도비		
합계	12,815,585	4,978,128	4,140,622	552,485	2,008,139	
일반회계	국비사업 (균특사업 포함)	6,986,267	4,693,107	4,140,607	267,479	1,124,581
	도 자체사업	5,817,688	278,064	-	278,064	883,558
	재무활동	4,795	4,795	-	4,795	-
	행정운영경비	4,795	122	15	107	-
기금	사회복지기금	2,040	2,040	-	2,040	-

자료 : 경기도(2024) 2024 노인복지사업 안내.

-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은 35개 사업으로, 노인돌봄(12개), 정신건강(1개), 기초생활유지(3개), 사회관계(1개), 보호 및 안전(1개), 일자리(7개), 법률 및 권익 보장(4개), 문화 및 여가(6개)로 구분
 - 보건복지부의 주요 이슈인 돌봄과 일자리는 경기도에서도 주요 이슈로 35개 사업 중 노인돌봄과 일자리 사업이 55.9%에 해당
 - 경기도 노인돌봄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경기도 신규사업인 AI노인말벗서비스가 있음
 - 돌봄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등
 -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등
 - 양로시설관련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 경기도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대표적이며,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분
 -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확대, 노인일자리창출지원 등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등

11) 경기도(2024). 2024년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확대·강화

〈표 5〉 2024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돌봄 및 일자리 분야)

사회보장영역	사업명	세부사업명	대상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양로시설 (기존지원 법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기존 지원 법인시설 근무 종사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존 지원 법인시설 근무 종사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형, 일반 확충)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환경개선비 지원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법인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만 65세 이상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SI 노인말벗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인 자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 인건비 지원	60세 이상 노인 노인일자리 담당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 인건비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	실버인력뱅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노인일자리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및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경기도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	신규 시장형 사업단 기존 시장형 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자료 : 경기도(2024). 『2024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주 : 음영부분은 변경된 부분 또는 신규사업

▶ 202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의 돌봄시간 확대와 함께 경기도는 대상자를 2023년 6만 6천609명에서 2024년 7만 2천404명으로 5천795명 확대, 국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2023년 113개소에서 2024년 116개소로 확대
- SI노인말벗서비스는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1회 SI상담원이 안부전화(약 3분) 서비스 제공하여 위기징후 감지 및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안부확인사업의 보완적 사업
 - 유선통화 시 위기징후가 있는지 대화내용 모니터링
 - 미수신 및 위기징후 감지 시 직접 전화상담 진행
 - 필요 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을 320시간으로 80시간 확대, 교육생 출결관리방식을 생체인식 가능한 전자시스템 및 비콘 활용으로 변화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
'360도 돌봄' 중
하나로 돌봄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4.1.1)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에서 12.95%로 0.14%p 인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는 정부의 공공 노인일자리 감축에 따른 생계유지가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 보호를 위해 공익활동형 어르신일 자리를 확대 추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보완적 사업으로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한 사업
 - 공익형 노인일자리로 운영되며,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자격증 관리사업은 양질의 장례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11개소의 장례지도사교육원을 대상으로 함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4.1.1)에 근거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개소당 월 155천 원에서 180천 원으로 25천 원 인상

2024년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 확대

- ▶ 누구나 돌봄은 어디나 돌봄, 언제나 돌봄과 함께 경기도 360도 돌봄으로 돌봄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함
 - 급속한 고령화 및 가구의 소규모화(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돌봄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 지속 제기
 - 급격한 고령화 등 당면한 노인문제 대응과 정책적 배려 필요. 중장년층에서 1인 가구 증가, 실직, 건강상태 등으로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 사업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정책 추진.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돌봄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 ▶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¹²⁾으로 하며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인으로 예상됨
 - 대상 :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①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비용 : 연 최대 1인당 1,500천 원
 - 서비스 종류 : 생활돌봄서비스, 동행돌봄서비스, 주거안전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활돌봄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12) 경기도(2023). 『누구나 돌봄 매뉴얼』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누구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적·통합적 틈새돌봄으로 노인이 주요 대상임

〈표 6〉 누구나 돌봄의 주요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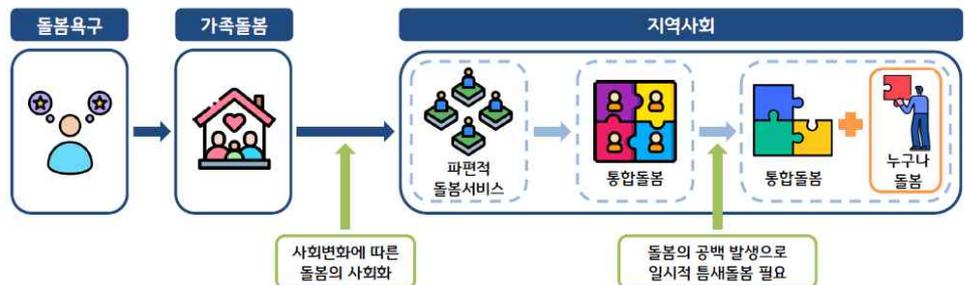
종류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이용한도	단가
① 생활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 설거지 등 준비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1시간 16,630원
② 동행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1시간 16,500원
③ 주거안전 서비스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소모품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충망, 못박기 등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1시간 16,500원
④ 식사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식, 죽식 제공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1식당 9,000원
⑤ 일시보호 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70,500원
⑥ 재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1시간 50,000원
⑦ 심리상담 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압박 등)에 대한 지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1시간 60,000원

자료 : 경기도(2023). 『누구나돌봄 운영 매뉴얼』.

▶ 누구나 돌봄은 일시적·통합적 틈새돌봄이며 전문적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의 의미가 있음¹³⁾

- 돌봄의 필요도·시급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메우는 일시적·통합적 틈새돌봄

〈그림 2〉 누구나 돌봄의 의미



자료: 황경란 최성은(2023). 『누구나 돌봄 운영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누구나 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에게 서비스 제공을 계획,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대상을 폭넓게 확장

13) 황경란 최성은(2023). 『누구나 돌봄 운영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II. 2024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 중심의 돌봄으로 정책변화

- 소득 측면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150% 미만은 50% 지원, 150% 이상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하며 재활돌봄, 심리상담까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로 설계
 -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우울, 중독,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기관 이용은 이용자에게 심리적 거리가 존재
 - 누구나 돌봄의 심리상담서비스는 조건 없이 간단한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 심리상담의 접근성을 높임
 - 재활돌봄서비스는 맞춤형 운동재활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
-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돌봄인프라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서비스 운영에 제한적이므로 시·군의 자율성을 확보
 - 시·군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5대 기본형 서비스와 7대 확장형 서비스로 구성
 - 이미 일시적 틈새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하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시·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이외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100% 도비로 지원¹⁴⁾

지역사회 내 지속적 거주를 위한 복지정책 변화

- ▶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르신 여가문화활성화, 촘촘한 돌봄 강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확대가 목표
-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설정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수립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은 소득·일자리·돌봄
- 노인소득 보장 중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심이나 노인일자리 또는 노인일자리 기회확대사업으로 보완적 정책 시행
- 보건복지부의 예방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확대
-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으로 일상생활지원,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안전, 마음건강 지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를 위한 틈새 지원
 - 기존 돌봄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긴급상황에 대처, 가족돌봄의 한계, 제도 신청 후 이용까지의 시간적 공백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으로 의미가 있음
- 시노인말벗서비스 등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인력과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려는 노력

14) 경기도 자료(2024.01). 2024년 누구나돌봄 추진계획(안)

노인복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기반 마련, 기존
사업과의 관계성 정립
필요

노인복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기반 마련

- ▶ 경기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확대를 2024년의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에는 소극적
 -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의 비중이 높아 신규사업 진행이나 기존 사업을 두텁게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비중이 적은 상황
 - 경기도 자체 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비의 17%에 불과
 - 사업 시행을 위한 실행 예산 편성이 우선 필요
-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연동하는 경기도의 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에 그치지 않고 연동되는 경기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마련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기반과 행정조직 구성

신규 돌봄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우선 해야할 일

- ▶ 돌봄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므로 운영 전 지역의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는 필수적
 - 복지인프라와 전문인력·비전문인력 등 활용 가능한 자원과 개발이 필요한 자원을 조사하고, 기존 돌봄사업의 이용자와 예비 돌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실시
 -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 인프라와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모색
- ▶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 제공기관, 도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시·군 대상의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제공기관 대상 운영 매뉴얼 개발
 - 사업 운영을 위한 시·군 공무원과 제공기관을 대상 일반적 교육과 컨설팅 시행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민간협회와 경기도 차원의 MOU 체결
 - 기존 돌봄사업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우선 지원 순위 논의 및 결정
- ▶ 신규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주기적 평가를 시행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시·군 맞춤형 돌봄사업 운영과 지속가능성 향상